

# 트럼프 “우크라 종전 위해 열심히 노력중…거의 해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314명 전쟁 포로 교환하기로 합의  
국가조찬기도 연설…“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천국 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그 전쟁 전체를 끝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종식에 매우 가까이 왔다. 우리는 거의 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 꾸준히 자신감을 보여왔지만, 이날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종전을 위한 두번째 회담이 열린 날이어서 주목

된다. 이날 3자 협상에서는 종전 합의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추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이 집권 2기 취임후 1년간 이른 성과들을 자랑삼아 나열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관세로 우리를 이용해 먹었다”며 “이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는 그런(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대

법원 판결을 얻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법원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위법성’에 대한 심리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적용이 적법하다는 쪽으로 결론 나기를 은근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재미 삼아 그랬던 것”이라며 “사실 나는 내가 아마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천국에 대한 언급을 종종 한 적이 있다.



미국 중재 하에 종전안을 협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5일 (현지시간) 2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만 314명의 포로 교환에 합의하는 것에 그쳤을 뿐 이번에도 별다른 돌파구는 도출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속개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의는 이날 오전에 시작돼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3국의 이번 협상은 지난달 23~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 380조원 ‘광산 공룡’ 불발 리오틴토·글렌코어 협상 결렬

영국·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스위스·영국 광산업체 글렌코어의 인수합병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5일 (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두 기업은 기업 가치 및 지배구조 등 합병 조건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리오틴토는 성명에서 “주주들에게 가치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글렌코어는 협상에서 리오틴토가 글렌코어의 구리 사업 부문을 비롯한 기업 가치를 ‘현저하게’ 저평가했으며 회장과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모두 차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이 합병에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2600억달러(약 380조원)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회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양사가 합병을 타진하다가 실패한 건 2014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영국 규정에 따라 양사는 향후 6개월 동안은 합병 논의를 할 수 없다.

연합뉴스

## 한국인 300명 구금사태후 韓기업 첫 조지아 현지 신규투자

동원금속, 440억원 투자해 공장설립

자동차 부품 제조사 동원금속이 미국 조지아주에 3000만달러(한화 약 440억원)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조지아주 정부가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동원금속은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

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지난 2007년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설립된 호건스빌 공장에 이어 동원금속의 조지아주내 두 번째 생산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원금속의 투자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후 주정부 발표 등으로 공개된 사안을 기준으로 는 한국 기업의 조지아주 첫 신규 투자다. 새 공장 부지는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의 현대-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다.

조지아주 정치권은 한국기업의 투자

재개를 환영하고 나섰다. 브라이언 켄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자동차 산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장관은 “동원금속의 두 번째 조지아 공장 설립은 주내(州內) 자동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주 외곽에 200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